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6호 [무계 제25489호] 주체 105 (2016)년 12월 11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상장 리영길 동지,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육군중장 박정천 동지, 조선인민군 제11군단장인 육군소장 김영복 동지가 맞이하였다.



란이 작렬하는 속에 적 폐당들은 모조리 사살한 전투원들은 심판대에 꿰어앉힌 악당들을 생포하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이어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화력소출을 받은 전선장거리포병들이 적의 소굴을 완전히 추방쳐버리는 일제사격을 가했으며 멸적의 포탄들은 특정대상물을 사정없이 두들겨쳤다.

타래처럼 오르는 화염과 연기기둥으로 하여 적의 소굴은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연평도의 불바다를 기어올려 청와대의 불바다로 이어놓고 남조선 피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영원히 처박아넣을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원수격멸의 루지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결전의 하루를 위해 훈련의 백날, 천날을 밤에 젖어 위훈의 날과 달로 이어오며 부대를 멸적의 전투태도로 강화시킨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소에서 인원 및 기재들의 동원준비상태와 훈련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훈련은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실전능력을 판정하고 남조선작전지대안의 특정대상물들에 대한 타격방법의 현실성을 확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드디어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남조선피폐역도들의 몸통아리를 천조각, 만조각으로 찢어발기고야말 일당백전투원들의 천백배 부수전이 시작되였다.

전투원들은 적의 대상물을 둘러싸고있는 높은 산고지들에서 활공락하산을 타고 날새마냥 소리없이, 눈깜박할 사이에

침투하여 외부경비력방소멸을 위한 파감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

불시에 날아든 직승기들에서 바들강하로 줄지어 쏟아져내린 전투원들이 저항하는 적들을 여러가지 전투행동조합으로 쓸어버리며 대상물로 벼락같이 돌입하였다.

뒤이어 경수송기들에서 용감하게 활출하여 적대상물에 직접 착지한 전투원들도 적들에게

몰사격을 들이쳤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용맹한 전투원들이 적의 특정대상물을 총횡무진 짓이겨대며 말겨진 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잘하오, 잘하라고 하시며 호랑이처럼 웃으시였다.

공분뭉치 울리는 총성과 수류

2 번 으 로 계 속

